

기술특례상장 제도 “부실기업 양산” vs “장기투자 종목”

이노스페이스·엑셀세라퓨틱스 상장일 고꾸라진 주가 회복 못해 투자자, ‘실적 부풀리기’ 우려 업계 “상장일 주가로 판단 어려워”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투자자의 우려와 증권업계의 낙관적인 전망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이미지.

올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이용해 기업공개(IPO)에 도전한 기업들이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이에 ‘상장 꼼수’를 언급하며 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투자자들의 의견과 단기간에 기업의 성장성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제도 옹호’ 의견이 맞서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기술특례상장으로 상장한 이노스페이스와 엑셀세라퓨틱스는 여전히 공모가를 밑도는 주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우주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2만 82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전용 배양배지 전문기업 엑셀세라퓨틱스 주가는 8330원에 보합됐다.

이노스페이스와 엑셀세라퓨틱스는

기술특례상장 요건들을 모두 충족했지만 상장일 고꾸라진 주가를 쉽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투자 커뮤니티에서 지난해 파주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언급하며 기술특례상장이 ‘부실 기업’을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날을 세우기도 했다.

가장 최근 상장한 기업인 엑셀세라퓨

틱스의 경우는 상장 첫날(15일) 주가가 장중 공모가의 1.3배 수준인 1만29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 등이 출회되며 결국 공모가 1만원 대비 16.70% 내린 8330원에 첫날 거래를 마쳤다.

투자자들은 새내기 공모주들이 상장일부터 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그 이유를 ‘기술특례상장 제도’에서 찾았다. 두

기업 모두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증시에 입성했다.

상장 기업이 일정한 기술력과 성장성만 확보하면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IPO가 가능하다. 기술특례상장은 ▲기술평가 특례 ▲성장성 추천 특례로 그 종류가 나뉘며 전문 평가기관에게 일정 수준 이상 기술 평가 등급을 받아야 한다. 기술성 특례는 2개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A 또는 BBB 이상 등급만 받으면 된다. 여기에 최소 재무 요건(‘자기 자본 10억원 이상’ 혹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례상장 기업의 성과 분석과 시사점’을 다룬 보고서에서 “상당수의 특례상장 기업들이 상장 후 장기간이 지나도 재무성과가 크게 개선되지 않아 기술력에 의존해 주가 성과를 내고 있다”며 “기술성과 공시제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증권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과는

해당 제도 탓만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그룹장은 “투자자들이 상장기업 첫날에 투자하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 안다”면서도 “해당 기업의 첫날 주가가 공모가보다 떨어졌다고 해서 그 기업이 안 좋은 기업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특례상장 요건과 심사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주가는 기업의 가치와 별개로 시장의 영향도 받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IPO를 주관한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은 당장 이익을 실현하지 못해도 미래가치를 두고 장기 투자해야 하는 종목이 오히려 많다”며 “2020년 이후 IPO 시장을 보면 상장 첫날 매도세가 강해 상장 기업의 가치를 상장일 주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中 ETF 변동성 커... 상승세에도 유의해야” TIGER 프리미엄 ETF, 순매수 1兆 돌파

中 관련 ETF 평균 6% 수익률 정부 경기 부양책 긍정적 영향 올해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중국 관련 ETF 수익률이 상승하고 있는 이미지.

중국정부의 증시 안정화 조치에 힘입어 중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중국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중국 관련 ETF들은 평균 6%가량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TIGER 차이나테크놀로지 8.22%의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TIGER 차이나향생테크놀로지 6.86%의 수익률을 보였다. 이 밖에도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 ET(7.41%), KODEX 차이나H테라비지(4.56%), TIGER 차이나바이오테크 SOLACTIVE(4.33%) TIGER 차이나CSI300테라비지(4.09%), TIGER 차이나향생테크(3.86%),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3.69%) 등도 양호한 수익률을 거뒀다.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이 중국 관련 ETF의 수익률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김시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대주 거래 잠정 중단, 공매도 증거금 비율 상향 조정 등 증시 안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투자심리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투자자들은 일주일간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와 TIGER 차이나향생테크를 109억원, 107억원어치 순매수했다. 한달로 기간

을 넓히면 775억원, 310억원어치 사들였다.

그러나 중국 증시는 최근 경기 부진에 대한 우려로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경기 부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전날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5.1%)를 밑도는 4.7%를 기록하면서 주요 투자 기관들은 중국 경제의 올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JP모건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2%에서 4.7%로 낮췄으며 골드만삭스는 기존 5%에서 4.9%로 내렸다.

따라서 업계 전문가들은 15일에 개막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20기 3중전회)를 변곡점으로 증시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부양책 강도와 정책 기조 확인 후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부동산 재고소진 정책 강화, 호적제도 개혁 시행 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대규모 부양책이 부재하다면 지수보다는 업종·테마 접근이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미래에셋운용, ETF 5종 성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프리미엄 커버드 월배당 ETF’ 5종의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 합계가 1조원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4종이 올해 신규 상장 ETF로, 최근 커버드 월 전략을 활용해 높은 수준의 월배당을 추구하는 TIGER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5일 기준 ‘TIGER 미국30년국채프리미엄액티브(H) ETF’의 연초 이후 개인 누적 순매수는 3555억원이다. 이는 국내 상장 커버드 월 ETF 중 최대 규모다. 해당 ETF는 미국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미국 장기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2월 신규 상장 이후 빠르게 성장하며 순자산 규모는 6026억원을 넘어섰다.

‘+프리미엄’ 전략커버드 월 ETF에 대한 매수세도 지속되고 있다. ‘+프리미엄’이란 콜옵션을 100% 매도하는 일반적인 커버드 월 ETF와 달리 목표한 프리미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옵션 매도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이 2023년 6월 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15일 기준 연초 이후 ‘TIGER 미국배당+7%프리미엄다우존스ETF’는 2824억원, ‘TIGER미국테크TOP10+10%프리미엄 ETF’는 2454억원의 개인 순매수 자금이 유입됐다.

‘커버드 월 2.0 ETF’라 불리는 ‘TIGER 초단기 월배당 ETF’에 대한 관심도 강화되는 추세다.

초단기 옵션을 활용해 옵션 매도 비중을 최소화 하고, 지수 상승 참여 비중을 극대화 한 이 전략은 기존 커버드 월 ETF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정윤 기자

삼성증권 MTS ‘엠팝’, 업계 점유율 1위

지난달 이용자 수 245만명

삼성증권의 자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엠팝(mPOP)’이 지난달 업계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16일 빅데이터 분석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삼성증권 ‘엠팝(mPOP)’의 6월 이용자 수는 245만명을 기록했다. 홈 화면 개편 관련 고객 수용도 조사에서 투자정보 조회의 편의성과 접근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올들어 삼성증권 비대면 계좌개설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국내외 주식 차트·투자정보 확대 서비스를 강화하며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투자정보 콘텐츠 이용을 확대하고 자뉴스·리포트·시황을 매일 선별해 제공하고 있고, 4월에는 채

권·펀드 상품 노출 화면을 개선해 금융투자콘텐츠에 대한 진입점도 제공했다.

또한 최근에는 ‘엠팝(mPOP)’의 첫 화면인 홈 화면을 개편했다. ‘오늘의 투자’와 ‘내 자산’ 2개의 메뉴 탭으로 구분했다. ‘오늘의 투자’ 탭에서는 다양한 종목 정보 및 투자정보를 제공한다. ‘종목 순위’ 상층, 거래대금 등에 따른 실시간 랭킹을 기존 가로형 카드 방식에서 리스트 방식으로 변경해 보다 많은 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번에 신설된 ‘종목의 발견’ 메뉴는 실시간 매매상위 종목과 삼성증권 주식투자수익률 상위 100명 고수들의 매매상위 종목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고객들의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원관희 기자

TSMC·브로드컴 등... AI 인기 ‘여전’

해외주식 Click

TSMC, 9523만달러 순매수 애플, 순매수 상위 종목 1위 달성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AI) 열풍이 서학개미(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투심에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상반기 내내 엔비디아를 적극적으로 매수하던 서학개미들은 전반적인 AI 관련 종목으로 선호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주(7월 9일~15일) 서학개미들은 타이완세미컨덕터매뉴팩처링(TSMC)을 9523만달러(1319억원) 순매수했다. TSMC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업체로 엔비디아, 애플 등을 주요 고객사로 두고 있다.

최근에는 엔비디아가 아키텍처(설계 방식)인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 생산 주문을 25% 이상 늘린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현재 빅테크 기업들의 신형 칩 모델 수요가 높은 편인데 신규

칩은 공급량이 수요에 비해 적다. 게다가 이번 엔비디아 신형 칩은 TSMC가 생산했던 제품 중 가격대가 가장 높아 호실적을 견인할 주요 포인트로 꼽힌다. 실제로 장분석업체 LSEG가 애널리스트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TSMC의 올해 2분기 순이익은 약 2361억 대만달러(약 10조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9% 성장한 수치다.

이외에도 서학개미들은 브로드컴(6977만달러), 인텔(3642만달러) 등 AI 반도체 관련 종목을 사들였다. 브로드컴은 최근 실적 전망치를 상향한 뒤 10대 1 주식 분할을 단행했다. /신하은 기자 godhe@